월요논단



김 명 범
행정학박사·제주공공문제연구소장

껍지의 둥지에 알을 낳는 감돌고기, 그리고 연대의 무게

대전에서 열린 마을기업포럼 일정 중, 충남 금강 수계의 맑은 숨결을 품은 이현마을협동조합을 방문했다.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여러 현장 사례를 마주했으나, 필자의 가슴속에 가장 깊고 무거운 울림을 남긴 것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 '감돌고기'와 포식자 '껍지'의 독특한 공생 이야기였다.

금강과 만경강 일부 청정 수계에 서식하는 한반도 고유종 감돌고기는 둥지를 스스로 틀거나 알을 안전하게 지켜낼 물리적 힘이 부족하다. 생존의 절벽에 선 이 작고 약한 물고기가 선택한 전략은, 강한 포식자이자 산란장을 철저히 지키는 껍지의 둥지에 무리로 난입해 알을 낳는 '탁란(托卵)'이었다. 껍지는 자신의 알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둥지를 지키는데, 감돌고기는 그 강자의 처절한 방어망 그늘을 빌려 종족을 부화시킨다. 위험천만한 난입이지만, 껍지 알보다 먼저 깨어나 유유히 둥지를 떠나는 감돌고기의 생존법은 이기적인 얌체짓이 아니다. 험난한 자연환경이라는 공동 위기 앞에서 작용하는 고도화된 연대와 협동의 생태학적 지혜다.

이 생태적 우화를 품고 제주로 돌아오는 길, 필자가 몸담은 건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전국 각지에서 고군분투하는 마을기업 주체들의 현실이 직관적으로 겹쳐졌다. 우리는 건입동의 역사와 김만덕의 나눔, 상생, 도전 정신을 잇고자 김만덕복합센터, 김만덕돌봄센터, 만덕양조장 운영 등으로 당면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달리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거대한 시장 경제 논리와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지금의 마을기업들은 여전히 '외로운 섬'처럼 파편화돼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서로의 자원과 인프라, 판로를 개방하고 거친 시장의 풍파를 함께 막아줄 '연대와 협동'의 울타리는 여전히 허술하고 성긴 것이 솔직한 현주소다. 각자가 가진 작고 외로운 섬에 갇혀 개별 돌파만을 도모하는 방식은 고도화된 경제 생태계 앞에서 이미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감돌고기가 껍지의 산란장을 활용해 종의 보존을 이어가듯, 마을기업 역시 파편화된 개별성을 넘어 촘촘한 사회적 연대망을 구축해야 한다. 갓 시작한 작은 마을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선배 조합의 인프라가 둥지가 돼주고, 서로의 판로와 자본을 묶어 거대한 시장의 파도에 맞서는 유기적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거친 풍파를 견디는 힘은 개별 기업의 탁월한 역량이 아니라, 함께 둥지를 지켜내는 결속의 밀도에서 나온다.

이현마을의 물빛 속에서 감돌고기가 던진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신들의 생태계는 서로의 생존을 위해 얼마나 깊게 연결돼 있는가?" 이제 마을기업과 사회적 경제는 각자도생의 관성을 깨고 서로의 온기와 인프라를 나누는 진정한 연대의 판을 새로 짜야한다. 홀로 선 나무가 아니라 서로의 뿌리를 깊이 얽어맨 숲만이 거친 비바람을 넘어서는 법이다.

열린마당

주거지원, 내 집 마련 이전의 어려움도 살펴야



유 도 준
제주대학교 야간 행정학과

제주도의 '하영드리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원 규모 확대만으로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사업은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받은 가구가 대상이다. 집을 살 초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출이 어려워 전월세에 머무는 가구는 지원받기 어렵다. 주택 구입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 임차 가구를 위한 정책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올해 신청한 2016 가구 중 지원받은 가구는 1098 가구다. 다자녀 가구를 우선하고 같은 순위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선정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출산을 준비하며 주거비 부담을 겪는다. 출산을 계획하는 단계의 주거안정도 고려해야 한다.

지원 효과도 확인해야 한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였으며 주거안정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원 가구 수 증가를 저출생 문제 해결 성과로 연결하기보다 정책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내년 사업 확대는 예산과 인원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야 한다. 주택 구입자금 지원과 함께 전월세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아우르는 정책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학교 현장 지원 역할 강화 나선다

학교-교육청 잇는 '소통관'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학교와 교육청을 연결하는 '소통관'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이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

도교육청은 지난 6일 본청과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관 워크숍'을 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학교 지원 사례 등을 공유.

소통관 제도는 학교와 교육전문직원을 1 대 1로 연결해 학교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워크숍에서 특강에 나선 고의숙 교육감은 "소통관들이 학교와 교육청을 잇는 든든한 소통의 가교가 돼 모두가 주인공으로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 김지은기자

김희찬 시장 순회방문 첫 발

○…김희찬 서귀포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이후 지난 6일 중앙동·안덕면·대정읍을 시작으로 17개 읍면동을 직접 둘러보며 시민들과 밀착 소통을 나누는 순회방문 첫 일정을 소화.

12월 초까지 진행되는 이번 순회방문은 읍면동을 직접 살피고 지역 주민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취임 인사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

김 시장은 "시민이 행복하고 희망찬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책임 있는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읍면동 순회방문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현장 중심의 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사설

반복되는 위험물질 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험물질은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으로 인체·재산·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다. 제주에서도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냉동 창고 암모니아 누출로 1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등 위험물질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귀포항 인근 수산물업체 냉동 창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암모니아 가스는 특유의 악취를 풍기며 인체에 닿으면 눈 자극과 두통, 메스꺼움 등을 유발한다. 서귀포시는 긴급문자를 보내 안전 조치 상황을 알리고 사고지역 일대 차량·출입 통제와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또 사고 피해를 우려해 대피를 희망한 인근 주민 17 가구 43명을 임시 대피시설로 이동시켰다. 도내 암모니아 누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제주시의 한 냉동 창고에서도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1명이 숨졌다. 올해 8월에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냉장고의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내에서는 최근 4년간 14건의 위험물질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피해를 입었다. 암모니아를 포함한 황산, 질산, 일산화탄소 등 위험물질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위험물질 사고는 재산과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위험물질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급 시에는 적절한 보호구 착용과 작업장 출입 통제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소버스 보급 막는 세제 혜택 폐지 재고해야

정부가 친환경버스에 대한 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폐지하려 하면서 제주지역 수소버스 보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충전시설 부족과 높은 차량 가격으로 민간 보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사라지면 제주지역 수소버스 보급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9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2028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세제 혜택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소버스 구매 시 대당 6000만~7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세제 혜택 유지를 요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선 이유다. 제주지역 수소버스 보급 실적은 저조하다. 이달 현재 도입된 수소버스는 24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민간업체가 구매한 차량은 10대뿐이다. 대당 가격이 6억~7억원에 달하는 데다 수소충전소도 사실상 1곳뿐이어서 보급 확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시 도두동에 규모가 작은 이동형 충전소가 문을 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서귀포지역 충전소도 내년 6월에나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 혜택 조기 폐지는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정책과도 배치된다. 정부가 구매 보조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세제 혜택 조기 폐지를 재검토하고 충전시설 확충과 구매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고영민(1964. 05. 21. 생)
• 최후주소 : 서귀포시 성산읍 산성효자로114번길 156-10, 고성리

상기자는 2026년 2월 1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6월 12일 제주지방법원 2026느단22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오등1길 140, 시동 305호 (오등동, 영도그린빌라)

2026. 11. 9.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고은하수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기수	비고
서귀포시 중문동 619	1기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및 재산권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당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공고인 및 문의처
 · 공고인 : 허재혁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30번길 1(010-3694-4654)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 064)760-6522
7.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 개장 전 식별이 현저히 어려운 '합장 분묘'의 경우, 부득이 이 공고로 분묘 개장공고를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6. 11. 9.

위 공고인 : 허재혁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 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 가 대 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 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억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 나 장 의 사
616-08-85402